

# 발도르프교육이란?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발도르프학교는 1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에 걸쳐 1,100개의 학교와 2,000개 이상의 유치원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학교 운동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바람직한 21세기 교육 모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자였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앞서 그 인간에 어떤 소질이 있으며 무엇이 그 속에서 개발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다" 라고 자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2년 교육과정의 목표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을 때 혼자서 배울 수 있고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12년 과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 발도르프연합이 출범하기까지~

- 1996년 | 괴테아눔 주최 <발도르프교육 심포지엄> 서울 개최
- 2002년 | 경기도 과천시에서 첫 한국발도르프 교육기관 시작
- 2009년 | 발도르프 교사연합 시작
- 2018년 | 발도르프 학부모연합 시작
- 2019년 | 발도르프 100주년 전국 발도르프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참여
- 2020년 | 발도르프연합 준비위원회 발족
- 2021년 | 5월, 발도르프연합 출범

## 2021년 현재, 총 15개 교육기관 참여(정회원 13개, 수습회원 2개)

고양발도르프	무등자유발도르프	성남자유발도르프	푸른숲발도르프
나스솔레(&나스칼리지)	부산발도르프	안양발도르프	물빛고운발도르프
대전자유발도르프	부천자유발도르프	잇다자유발도르프	서울빛들발도르프
동림자유	서울정릉발도르프	청계자유발도르프	



# 세상을 변화시키는 배움

### 발도르프연합의 시작

- 발도르프교육 소개
- 발도르프연합 소개
- 발도르프교육 과정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배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배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연합의 시작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연합의 시작

발도르프교육은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도르프연합의 시작

- 발도르프교육 소개
- 발도르프연합 소개
- 발도르프교육 과정

배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 12 11 10 9 8 7 6 5 4 3 2 1

**Movement**

**form**

오이리트미

음악 노래

외국어

우리말 글

역사

과학

수학

형태 그리기

미술

수공예

음악

언어

인간

자연

의지

감정

사고

